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영국 더비대와 사회복지 문제 해결 프로젝트

글로벌 시각에서 지역사회 문제 보다

글로벌대학30 사업 일환으로 국제연수 진행

사회복지 · 돌봄 · 범죄학 등 프로그램 참여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영국 더비대학교(University of Derby)와 함께 지역사회복지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연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4일 까지 9일간 진행됐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연수단 12명은 다비 문화 탐방과 영어 교육을 비롯해 사회복지, 돌봄, 사회정책, 간호학, 심리학, 3D 디자인 등 지역 문제 해결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사회학과 범죄학 분야의 특별 강의를 수강하며 글로벌 시각

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전 문성을 키웠다.

특히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했다. 매일 그룹별 회의와 토론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김현빈 학생(2년)은 "짧지만 밀도 높은 일정 속에서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었고, 창의적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규형 사회복지학과장은 "이번 연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영국 더비대학교(University of Derby)와 함께 지역사회복지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수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학문을 접하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대학으로서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2025 하계 필링코리아' 큰 호응

183명 참여... 역대 최대 규모

10여개국 참가... UAE 등 첫 합류

'2025 하계 필링코리아(The Feeling Korea)'가 역대 최대 규모인 183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여름방학에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영국, 그리스 등 기존 우호 국가를 넘어 우즈베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UAE) 대학이 처음 참여하며 국가별 다양성을 확대했다.

참가자들은 전주를 중심으로 서울, 남원, 김제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한복 체험과 비빔밥 만들기 △남원 광한투원 야간투어 △국립무형유산원 탐방 △김제 금산사 템플스테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폭넓게 경험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전통공예, 불교문화, 한식 등을 직접 체험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일부 참가자들은 전북대 학부 편입이나 교환학생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국 장안대학의 Guo Zhitao 학생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뜻깊었



전북대학교 '2025 하계 필링코리아(The Feeling Korea)'가 역대 최대 규모인 183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다"며 "지난 2주간 함께한 참가자 모두 가족 같은 친밀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진웅 전북대 국제협력부처장은

"필링코리아는 전주라는 전통문화도시를 기반으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그램"이라며 "참가국 확대와 역대 최대 인원 기록은 글로벌 네

트워크 확장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보건의료 인재 양성 '맞손' ... 전북대 간호대, 심평원 전북본부와 협약

특강 · 실습 등 지원 협력

교육자원 공동 활용키로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와 지역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대 정석희 간호대학장과 문경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과 정



책 현장을 간담히 연계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 특강과 견학, 실습 등 교육과정을 지원에 협력하고, 시설과 매체, 자료 등 교육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인적 교류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석희 학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미래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아 전북본부장은 "보건의료 인재 양성과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두 기관이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서로의 강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신입교원 위한 '교수법 콘서트' 개최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11일 2025학년도 3차 교수법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신입교원의 대학 환경 및 교육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강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으로 기획됐으며, 임용 3년 미만의 교원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신입교원 교수법 멘토링 △연수 결과 보고 및 성과 공유 △Lunch&Grow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단순한 강의

전달식 연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교수자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강의 고민 나눔 빙고'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게이미피케이션 형식을 접목한 이 활동은 수업 중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해 주고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수법 공유가 이뤄지는 효과를 봤다.

이어진 Lunch&Grow 프로그램에서는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자유로운 대화



와 사례 중심 토론을 통해 학습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입교원의 강의에 대한 고민을 보다 심도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민원행정 · 제도개선 방안 심의

전북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본청 회의실에서 '2025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방안 △민원 우수공무원 선정에 관한 사항 △다수인·반복 민원의 방지 및 해소 대책 △민원 처리 부서 지정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현장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한 직원을 민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다수인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민원 행정 전반의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지난 11~12일 양일간 전주 신라스테이호텔에서 진행된 '2025년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제주권 청년고용 활성화 모색

전주대 등 17개 대학 취업지원 실무자 등 참석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 성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전주 신라스테이호텔에서 진행된 '2025년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장을 비롯한 전라제주권 17개 대학 취업지원 실무자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청년고용정책 방향과 대학별 취업지원 전략과 현장의 애로사항,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4년 15개 대학이 참여했던 것에서 17개 대학으로 확대돼 전라제주권 대학 간 연대와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우수사례 공유 △청년 취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다각적 청년정책 △지

무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질 제고 방안 △지역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대학 현장에서 마주하는 애로사항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 모색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라·제주권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호선 전주대 진로취업지원실장은 "올해는 참여 대학이 17개로 확대돼 더욱 탄탄해진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위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역 대학 간 연계와 공동 사업 추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 · 수도권 대학 수시 지원전략 안내

전북교육청, 16일 수시 전략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대입 수시전형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 증가, 의대 정원 원상복구, 무전공학과 확대 등 변화하는 대입 환경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이자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자료개발팀장인 조창녕 교장북교 교사가 전북권 대학, 지방거점국립대, 교육대학의 수시 지원 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안준범 경기 광주중앙고 교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가 수도권 대학 중심의 수시 지원 전략을 소개한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교육청은 설명회 참석자에게 수시 지원 전략 자료집(2부)과 의학계열 3개년 입학정보 분석 자료집을 제공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해당 영상을 전북교육청 유튜브 채널(전북교육 대입정보 TV)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지역과 환경에 따른 진학 정보 접근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밖 교육과정 미래 이차전지 인재 양성 협력

군산기계공고 · 전북인력개발원 · 명신기술교육원, 교육 진행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채정배)는 오는 14일까지 전북인력개발원, 명신 기술교육원과 협력해 '이차전지 학교 밖 교육(4학점 졸업학점 취득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신 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에는 군산기계공업고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이차전지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배터리 제조 공정, 전기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작동 사례 등 심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학교 밖 교육은 지난 2023년 7월 지정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문 인재를 길러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학생들은 전북인력개발원, 명신 기술교육원의 최신 장비를 활용해 셀 조립, 충·방전 테스트, 전압·용량 측정 등 실제 산업 절차를 경험하며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정비와 검사 역량을 키우게 된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현장에서 활동 중인 배터리 전문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동향과 진로 설계'를 주제로 특강도 마련했다.

한편 군산기계공업고는 군산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인 '기업이름 과학캠프'와 '2025년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 운영학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생들은 드론 시스템 점검, 부품 교체, 이차전지 테스트 등을 수행하며 신기술 응용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함양한다.

드론 교육은 단순한 충전 조작을 넘어, 비행 원리와 센서 데이터 분석까지 다뤄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있다.

채정배 교장은 "이차전지와 드론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학교-연수원-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